

722nd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이정표



피아노 니콜라이 루간스키
Nikolai Lugansky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PROGRAM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 26>
S. Prokofiev <Piano Concerto No. 3 in C Major, Op. 26>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60>
D. Shostakovich <Symphony No. 7 in C Major, Op. 60>

2017.9.21.THU.8PM

강동아트센터

2017.9.22.FRI.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이정표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불협화음과 반음계적 구성으로 기괴한 느낌을 주면서도 청량감 넘치는 빠른 전개와 정확하게 분배된 고전적인 형식미로 인해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협주곡이다. 러시아가 낳은 거장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간스키가 음표 속에 숨어든 러시아의 깊은 감성의 세계를 날날이 해부한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은 일명 '레닌그라드 교향곡'으로 불린다. 2차 대전 유럽 동부 전선에서 가장 처절했던 전투 중 하나였던 레닌그라드 공방전의 외중에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탄생한 음악답게 날이 선 예민한 기질과 투쟁적 어조 등이 인상적이다. 전쟁 중에는 파시스트 전체주의에 대한 고발장라도 같은 교향곡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전쟁의 참혹함과 광기, 스탈린 체제 소련의 폭력성 등을 증언하는 음악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1악장에 등장하는 작은북의 집요한 반복과 포만감이 넘쳐 흐르는 대편성 관현악의 폭발적인 음향 등은 언제 들어도 깊은 인상을 준다.

PROGRAM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 26>

S. Prokofiev <Piano Concerto No. 3 in C Major, Op. 26>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60>

D. Shostakovich <Symphony No. 7 in C Major, Op. 60>

CAST



지휘자 요엘 레비 Yoel Levi

2014 ~ 제8대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2005 ~ 2012 내셔널 일 드 프랑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2001 ~ 2009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2001 ~ 2007 브뤼셀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1988 ~ 2000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1978 ~ 1984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및 상주지휘자
1978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



피아노 니콜라이 루간스키 Nikolai Lugansky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없는 2위(1994년)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뮌헨 필하모닉, 리카르도 샤이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발레리 게르기예프, 파보 예르비 등과 협연
디아파종 황금상, 에코 클래식상, 독일음악비평가상 수상